

# 제6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8.04.20.(금), 14:30~16: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 석 : 정영기 의 장, 김장훈 부의장, 강주영 평의원, 윤호섭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조현주 평의원, 노시평 평의원, 나창용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오설빈 평의원  
(불참 : 김대중 평의원, 김준형 평의원, 이삼구 평의원)

## 4. 의안

- 평의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
- 심의 사항
  - 학칙 개정(안)
- 자문 사항
  - 2017학년도 교비회계 및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 5. 주요 회의결과

### 가. 평의원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의장 선출

-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임기 : 2018.01.20.~2020.01.19.)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교원대표 평의원	의학과	교수	정영기	연임
	건축학과	교수	김장훈	신임
	화학과	교수	윤호섭	연임
	e-비즈니스학과	교수	강주영	신임
	의학과	교수	김대중	신임
직원대표 평의원	총무팀	팀장	이동렬	연임
	병원경영팀	팀장	조현주	신임
학생대표 평의원	건축학과	총학생회장	이성호	연임
	교통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학생회장	오설빈	신임
동문대표 평의원	(주)넥스아이티	대표	노시평	신임

<간서명 란>

의 장



교외인사	(주)한산씨엔에스	대표	나창용	신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준형	연임
	(주)해동산전	대표	이삼구	연임

○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정영기 평의원을 의장으로, 건축학과 김장훈 평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함

### 나. 심의사항 - 학칙개정(안)

○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학칙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

- 법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법학과 소속이었던 제적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를 대비한 경과 규정을 확인함.

#### [주요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내용
제4조 제11조	▷ (별표1) 기구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변경, 연구기관으로 “계몽안정성연구소”, “외상연구소” 추가, “창업지원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에서 총장직속기구로 변경
제9조	▷ 법과대학 삭제,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제21조	▷ (별표9) 학사과정 입학정원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제50조	▷ 법과대학 삭제
제54조	▷ (별표5) 학사과정 전공표에서 법과대학 삭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제3차 교무회의 회의록 참조

### 다. 자문사항

○ 2017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 1) 보고사항

- 총무처장이 2017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설명함.

<간서명 란>  
의 장



## 2) 자문사항

- 전입금 전체 수입에서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제외한 재단 및 병원으로부터의 전입금은 489억 정도임. 이중 본교로의 전입금은 35억2500만원 정도로 7.2%를 차지하고 있음. 그나마 본교 전입금 중, 32억8천만원은 법정전입금이며, 경상비 전입금은 2억4500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적절한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 전입금 증가가 절실히 요구됨.
- 실험 실습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공계 교육여건 유지에 심각한 위협임.
-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는 학교 명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도 병원 명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병원 수익 중 일부분을 대학 건물에 신축하는 등 투자 계획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간사명란>  
의 장



○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1) 보고사항

- 행정부원장이 2017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설명함

2) 자문사항

- 당초 목표한 트리플 5(의료수입 5천억 이상, 의료이익 5% 이상, 일평균 외래환자 5,000명)를 거의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한 경영성으로 평가됨.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의료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됨.
- 전출금 중, 교비 운영비로의 전출이 전년 대비 47.8% 증가함. 또한, 외건 상, 교비운영비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대/간호대 전출금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함.
- 고유목적사업비 중,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해 100억원을 규모확대재원 명목으로 전출하였음.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되더라도, 광고 사업 명목으로 매년 40억원 전후의 돈이 전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됨.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병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괄목할만한 수익성장에 기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반드시 강구할 것을 요구함.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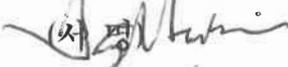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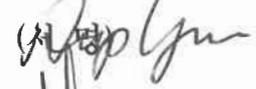
의 장



2018.04.20.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정영기
평의원	김장훈
평의원	윤호섭
평의원	강주영
평의원	이동렬
평의원	조현주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오설빈
평의원	노시평
평의원	나창용
간 사	김종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